



理工學界에서 守節한

田 豐 鎭 博士

“제 履歷書는 딱 세 줄입니다. 敎職에 있으면서 研究生 活만 계속했으니까요. 나의 至上目標은 pulp의 자급자족 이거든요.” 이 말은 漢陽大學校大學院長室을 찾은 記者에 게 田豐鎭博士가 전해준 첫마디이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田박사는 근 30년 동안을 敎壇에 머물면서 學門담구와 後進 養成에 힘쓰고 있다.

오직 하나의 目標을 向해 一生을 바친다는 것만큼 幸福한 일이 또 있을까?

弟子에게는 너그러우신 그러나 研究에 있어서는 執念이 強하신 大學敎授의 체취를 물씬 풍기는 田박사의 모습에서 記者는 다시금 學窓時節로 돌아온 듯한 착각을 느낀다.

日帝治下 당시 「工業으로 祖國을 富強시켜보겠다」는 굳은 理念에서 大阪帝大工業部를 志願했다니 田박사의 愛國心 또한 青年期부터 투철했음을 엿볼 수 있겠다.

卒業後에도 研究生生活을 계속하게 된 原因을 묻자 “工業振興은 무엇보다도 資本充足과 國家施策이 필반됨이 야 한다는 事實을 결감했기 때문이지 제 혼자 힘으로 技術을 開發하고 더욱이 日本人과 對決할 수 있는 길은 단지 頭腦의 경쟁 뿐이었으니까…….”

大阪帝大 在學時 唯一한 韓國學生이며 東洋最大의 科學研究所였던 滿鐵中央試驗所에서도 유일한 韓國인 研究員이었다니 田박사의 孤軍 분투 生活은 무척이나 고달팠으리라. 더욱이 7年間의 研究所 生活中 18篇이나 되는 論文을 發表했다는 事實을 알았을 때 記者는 田박사의 情熱과 굳은 意志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日本留學 당시 pulp 제조의 基礎研究를 담당하여 工業化시킨 것을 비롯하여 現在 종이 공업의 97%를 國內에서 自給자족하게 될 때까지 田박사는 pulp 및 製紙工業의 現代化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아직 紙質이 國際最上級에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와 하시면서 그 主要原因은 “pulp 원료의 輸入에 制限이 있고 國內市場이 협소한 탓일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技術의 우수성을 강조하신다.

學術과 技術 兩面에 多大한 업적을 남겨놓은 田박사는 오늘날 훌륭한 科學技術研究人들이 事務職이나 경영진으로 전환해가는 경향을 우려하시면서 “이는 技術職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安心하고 社會에 기여할 수 있는 條件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겠느냐”면서 技術者의 待遇 改善을 強調하신다.

研究하는 科學徒의 立場에서 볼 때 기술 개발을 一生의 目標로 삼고 있는 同志들의 數가 줄어드는 現狀은 정말 서글픈 일이라면서 “pulp 製紙의 研究도 重要하지만 科學·技術徒들이 마음놓고 學問할 수 있는 條件과 施策부터 서둘러 研究해야 할까보다”고 껄껄 웃으신다.

울들어 65才임에도 아주 정정하심에 그 비결을 여쭙어 보았더니 “規則的 生活과 二食主義 (아침, 저녁 식사만)가 나를 健康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참 近來에는 요가를 좀 하구 있지요”라고 대답하신다. “하지만 애초부터 부모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養아주셨던 德이죠”

건강한 博士의 모습에서 科學韓國의 躍動相을 엿보는 것 같아서 記者는 마냥 고맙기만 했다.